
국어 어를 잘 푸는 알고리즘

「독서(비문학)」

알고리즘 algorithm [명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

<나의 이야기>

수험생 시절,

나는 국어 때문에 고생하던 일반적인 3~4등급 학생 중 하나였어.

국어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거든.

유명한 인강과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고, 사설 모의고사 양치기를 해보고, 심지어 대치동을 가서 1타 강사의 현장강의를 들어 봐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 실전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성적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

그렇게 재수를 했어.

재수 초기 겨울, 국어는 대체 무슨 과목이길래 이리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건지, 미친 듯이 연구에 빠졌어. 약에 발친 거지. 실전에서 무너지지 않는 실력을 만들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올 무렵, 연구는 결실을 맺었어. '국어는 바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지. 방법에 대한 깨달음은 성적을 단숨에 수직 상승시켰고, 애만 먹이던 국어는 그 어떤 과목보다 효자 과목이 되었지. 그 덕에 꿈에 그리던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 국어 때문에 좌절만 하던 나에게 정말 기적적인 결과였지.

교대에 진학하고 나서도 수능 국어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 나처럼 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알못'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내가 깨달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는다면 나만큼 고생하진 않을 테니까.

인터넷에 칼럼글을 올리고, 전자책을 출간하고, 과외를 하는 등 대학 시절의 반 이상을 수능 국어와 함께 보냈어. 많은 학생들이 내 방법을 통해 성적을 올리고 감사의 말을 전해줄 때마다 너무 너무 기뻐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며,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지. 교대를 졸업했으나 수능 국어 강사의 길을 걸기로 선택했고, 그 일환으로 올해도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었어.

이 책은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방법론을 다루는 책이 아니야.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과 행동들, 하지만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생각과 행동들. 이것들을 '알고리즘'이라는 단순한 행동강령들로 만들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야. 이 책과 함께 안정적인 국어 고득점을 쟁취해보자.

From 유성

< 학습 방법 >

Step 1. 알고리즘 정리

일단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보며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알고리즘(행동강령)의 형태로 알아보자.

Step 2. 알고리즘 훈련하기

배운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문제를 풀어보자. 알고리즘을 누적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차례를 구성했어. Guide에 따라 학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을 체화할 수 있을 거야.

Step 3. 해설지 비교/피드백

자신이 답한 내용을 해설과 비교해보며 피드백을 해보자. 이때 모든 문제를 풀고 한 번에 해설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지문을 끝낼 때마다 바로바로 해설지를 펼쳐서 비교해야 해. 그래야 잘못된 점을 즉시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 목차 >

Prologue. 독서 개념 정리 ----- 6p

알고리즘 1~3. 문장 독해하기 ----- 12p

알고리즘 4. 정보 추출하기 I ----- 16p

↳ 알고리즘 훈련하기

알고리즘 5. 정보 추출하기 II ----- 28p

↳ 알고리즘 훈련하기

알고리즘 6~7. 정보 조직하기 ----- 41p

↳ 알고리즘 훈련하기

알고리즘 8~9. 정보 추론하기 ----- 53p

↳ 알고리즘 훈련하기

알고리즘 10. 난해한 정보의 처리 ----- 69p

↳ 알고리즘 훈련하기

정답과 해설

Prologue

독서 개념 정리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
먼저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몇 가지 지식들을 정리해보자.

출제자가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

출제자는 선지에 함정을 파놓을 거야.

학생이 지문과 선지의 정보 관계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게 하도록 말이야.

즉, 선지의 표현을 지문과 달리하여 일치 여부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야 학생들이 ‘눈알’이 아닌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풀 테니까.

그럼 우리는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지, 함정을 파놓는지 알고 있으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출제자가 선지를 구성하는, 다음 다섯 가지 방식을 잘 외워두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1) 표현 바꾸기/추가하기

[표현 바꾸기/추가하기]는 **의미적으로 이어지는/이어지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문의 표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방법이야. 의미적으로 이어지는 단어로 바꾸거나 추가할 땐 적절한 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거야.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①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은,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에 대해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O)

⇒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모르는’이라는 적절한 단어로 바꿨어.

② 거친 성격의 사람이 타인의 조언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한 행위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X)

⇒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타인의 조언을 듣고’라는 부적절한 단어로 바꿨어. 타인의 조언을 듣고, 말하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2) 표현 지우기

[표현 지우기]는 **지워도 되는/지우면 안 되는 표현을 지워 지문의 표현을 바꾸는 방법**이야. 대부분의 표현은 지워도 말이 되지만, (특히 조건부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표현은 지우면 안 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면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면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O)

⇒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표현이 지워졌지만 필수적인 표현이 아니야. 없어도 말이 되니까.

②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X)

⇒ ‘물가가 경직적이면’이라는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표현이 지워졌어. 부적절해.

알고리즘 1~3

문장 읽기

모든 문제의 단서는 지문 속 문장으로부터 시작돼.
일단 문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부터 잡고 가자.

알고리즘 3. 용어/사상에 관한 정보는 확실하게 기억하여 활용한다.

독해하기 어려운 글의 특징이 뭔지 알아? 간단해.

‘어려운 용어/사상’을 마구 사용한다는 거야.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위는 실제 기출된 문장이야.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모르는 게 당연해. 위 문장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출제자도 이를 모르지 않아. 그래서 전후 맥락에서 ‘회전체’, ‘회전 관성’, ‘질량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용어/사상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위 문장을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깔아주겠다는 거야.**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_용어/사상을 제시하며 배경지식을 깔아주는 문장들

이렇게 제시된, 용어/사상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면 위의 어려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쉽게 수정할 수 있어.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 각 부분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총합〉
중심으로부터 멀수록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훨씬 직관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한 문장이라서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결코 어려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이

용어/사상을 제시하는 문장에서 해당 정보를 그 어떤 정보보다 **확실히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지?**

용어/사상이 제시되는 예)

[용어]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사상]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용어/사상에 관한 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확실하게 기억하자!!
이를 적극 활용하면 문장이 훨씬 편하게 읽힐 것이다!!

알고리즘 4

정보 추출하기 I

결국 수능 독서는 문장에 담긴 정보를 머릿속에 잘 남겨서, 이를 단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이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문장에 담긴 정보를 머릿속에 더 잘 남길 수 있을까?

알고리즘 4. 정보 관계를 단순화하며 읽는다.

(일단, 7~8p를 다시 한번 읽고 오도록 하자.)

이전에 국어 문제를 애매함 없이 해결하기 위해선 문장에서 정보 관계를 뽑아내, 이를 활용해야 한다 했어. 하지만 사실 지문에 제시된 모든 글자에 대하여 정보 관계를 추출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우린 그 '모든' 정보 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문제 해결의 단서로 쓸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린 정보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인 단순화를 할 거야.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위 문장의 '모든 글자에 대하여' 정보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 16C 전반 서양: 태양 중심설(지구 중심설의 대안) → 천문학 분야의 개혁 → 경험주의 확산 & 수리 과학 발전 → 형이상학 변혁

하지만 이대로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 보이지? 한 문장 속 정보 관계를 기억하려다 머리가 터지고 말 거야.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보를 요약, 즉 **단순화**해보자.

위에서 '태양 중심설 제시', '지구 중심설의 대안', '천문학 분야의 개혁', '경험주의의 확산', '수리 과학 발전'은 모두 맥락상 비슷비슷한 의미들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다 <천문학 발전>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문장을 단순화할 수 있어.

▶ 16C 서양: 천문학 발전 → 형이상학 뒤바꿈

어때, 길고 복잡했던 문장이 훨씬 단순해졌지?

단순화를 하고나니까 훨씬 기억하기도 쉽고, 문제 해결의 단서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한 형태가 되었어. 지문을 독해할 때, 단순화가 절실한 이유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문장에 대해 단순화를 진행하고 또 그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쓰게 될 거야.

모든 문장에 대해서요? 그걸 다 쓰면서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맞아. 오래 걸려. 하지만 필요한 훈련이야. 머릿속으로만 문장을 단순화하다보면, 결국 제대로 된 습관을 못 만들고 잘못된 단순화를 해도 고치기 어렵거든. 그러다 보면 다시 문장을 대충 읽고 대충 기억하는 악습관만 자라날 거야.

하지만 단순화한 내용을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정말 괜찮은 독해 훈련 방법이 될 거야. 적어도 이 책에서만이라도, 훈련에 따라 단순화한 내용을 직접 손으로 정리해보자. 당장은 귀찮은 훈련이 되겠지만, 훗날 돌아보면 올바른 독해 습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문장을 읽을 때, 계속 '당연하지'를 외치려 하자!!
당연함을 납득하면, 그 정보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진다!!

(1)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 정보 관계 정리

당연히 위에서 누르는 눈이 많아지니까 눈의 밀도가 증가하겠지? 당연하지를 외칠 수 있어.

(2)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된다.

(3) 이때 눈 입자들 사이에 들어 있는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용어에 대한 정보니까 확실하게 기억해줘야겠어.

(4) 이 속의 기포들은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당연히 눈 입자들 사이에 갇혀있었으므로 당시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당위성 납득하자.

(5) 기포가 포함된 얼음을 시추하여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고, 이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그 속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다.

(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당연히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속 성분은 과거 대기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면 과거 대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지.

#1.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밀도가 감소한다.

()

#2.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을 통해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있다.

()

→ 한 지문이 끝나면 바로 해설지에 쓰인 내용과 자신이 쓴 내용/생각한 내용을 비교해야 해. 그래야 다음 지문에서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7)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8)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속된 과정이다.

노동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확실하게 기억해주자.

(9)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0)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의였다.

제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확실하게 기억해주자.

(11)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12)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3. 고대인들에게 노동과 제의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

#4. 고대인들은 신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개인적 행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

#5. 고대인들은 특정 시기가 되면 자연을 유용한 사물로 만들고 그것을 신에게 바쳤다. ()

국어 잘 푸는 알고리즘

「독서(비문학)」

정답 및 해설

유성

(1)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눈: 매몰 → 밀도 ↑

(2)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된다.

하부의 눈 → 얼음

(3) 이때 눈 입자들 사이에 들어 있는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얼음 속에 갇힌 눈 + 압력 증가 ⇒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4) 이 속의 기포들은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

(5) 기포가 포함된 얼음을 시추하여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고, 이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그 속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클라트레이트 성분 분석.

(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 과거 대기 정보 파악

#1.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밀도가 감소한다.

(X)

#2.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을 통해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있다.

(O)

(7)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고대인: 평소 → 노동
vs 특정 시기 → 제의

(8)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숙된 과정이다.

노동(숙된 일): 자연 → 유용하게

(9)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노동 → 자연 훼손 → 신께 죄

(10)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의였다.

제의: 사물 → 자연, 집단적 놀이 & 속죄 행위

(11)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의: 가장 유용한 사물 희생 → 신이 받아들

(12)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제의 → 연대감

#3. 고대인들에게 노동과 제의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X)

#4. 고대인들은 신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개인적 행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X)

#5. 고대인들은 특정 시기가 되면 자연을 유용한 사물로 만들고 그것을 신에게 바쳤다. (X)